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5년 동안 이어져온 아름다운 동행

—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15주년 맞이 기념행사 가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대표전화 : 1577-0675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개설 1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7일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형민 부천성모병원장과 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 이경식 교수, 한국호스피스협회 박재순 홍보이사를 비롯한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동훈 원목실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봉사자 감사패 전달과 환자 가족, 봉사자, 의사의 체험담을 발표하는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지난 1993년, 경인지역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현재 인천·경인지역 유일의 호스피스 병동으로서 지

난 15년 간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8년부터 부천시 세 개 보건소와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역 사회 암환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다.

김형민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호스피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매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호스피스 공개강좌와 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모임,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체적 아픔을 완화시키고 정신적 치유를 해온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 모든 사람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일일찾집을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간호사 중심으로 하였으며, 병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원장님, 원목실장님 부님, 간호국장님, 교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추운 날씨에 많은 내원객들이 호스피스 일일찾집을 찾았으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고맙다’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